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 취임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 되겠다”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5.23 13:58 | 댓글 0

[예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 정훈 박사는 5월 22일 취임식에서 “학생, 교원, 교육활동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이 2007년 9월 20일 설립했으며, 조직으로 1실 2부인 기획정책실과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가 있다.



5월 22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훈 박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이 되도록 우리 중앙회 가족들과 함께 이사장으로서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하겠다고,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사진=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조직 발전을 위한 업무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시행 하겠다”고 천명해 내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직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조직혁신안 마련 및 마스터플랜 구축을 하겠으며, 둘째, 불필요한 시스템 철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셋째, 원활한 대외협력업무를 위한 조직재정비를 하겠으며, 넷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의 업무 기능 강화 방안으로 “첫째, 업무에 ICT 기술인 AI 업무 프로세스 도입개선을 통해 단순화·간소화·정확화 기능을 강화하고, 지점 중심 대면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이동하여 업무의 공정성·효율성·합리성·신속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직원들의 높은 전문성과 직업윤리로 신뢰 획득이 필요한바, 직원 대상 업무역량 관련 특강, 세미나, 학습동아리 등 사내교육 강화로 업무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셋째, 의사결정 체계 정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며 넷째, ESG 도입으로 사회적 책임·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와 공헌도 향상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 확대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 추진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생활안전교육·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약물 및 사이버교육 예방교육·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은 학교안전정보센터 자료 적극 활용 ▲학교안전사고 특성별 적극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방안 수립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조직발전과 업무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이 되도록 우리 중앙회 가족들과 함께 이사장으로서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하겠다고,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훈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KIUF 명예총장(우즈베키스탄), 현 성운대학교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전 서정대학교 부총장 등의 이력이 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취임...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 만들 것"

"학생안전사고 통계 분석해 정책과제 도출, 교육자료 활용 적극 추진"

조문정 기자

입력 2023-05-23 12:08 | 수정 2023-05-23 13:42



▲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 ©정훈 이사장 제공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이 되도록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22일 취임사에서 "공제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공제회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5대 분야 중 하나인 피해회복 지원 및 재발방지 추진 과제에서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며,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과제 도출과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안전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교육 예방교육,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은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약 1350개의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회가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12개), 체험관(24개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1, 2기), 매년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방역으로 인해 대면 교육활동이 축소돼 학교안전사고가 감소했으나, 이제 학교교육이 정상화가 됐으므로 학교안전사고 특성별로 적극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방안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중앙회의 조직발전 방안에 대해 "조직혁신안 마련 및 마스터플랜 구축, 불필요한 시스템 철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단편 실시, 원활한 대외협력업무 위한 조직 재정비,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한 뒤 대경대 경찰행정과 교수, 서정대 부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교육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성운대 석좌교수와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KIUF) 명예총장을 맡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에 정 훈 성운대 석좌교수 취임

A 오영세 기자 | © 입력 2023.05.23 15:23 | 댓글 0



A 오영세 기자 | © 입력 2023.05.23 15:23

「대한민국 최고 학교안전전문기관 되도록 서번트리더십 발휘할 터」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임 이사장이 22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에 정 훈 성운대학교 석좌교수가 22일 임명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통해 학생, 교원, 교육활동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6대 이사장에 임명된 정훈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앙회 설립목적과 비전, 사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발전 방안과 업무기능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정훈 신임 이사장은 먼저 조직발전 방안으로 ▲조직혁신안 마련 및 마스터플랜 구축 ▲불필요한 시스템 철폐 및 효율성 제고 위한 조직진단 ▲원활한 대외협력업무를 위한 조직재정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 관리 기능 강화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기능 강화 방안으로 ▲AI 업무 프로세스 도입·개선으로 정보화 기능 강화, 지점 중심 대면방식→온라인 비대면 업무 중심 이동 ▲직원 대상 업무역량 관련 특강, 세미나, 학습동아리 등 사내교육 강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의사결정 체계 정비·구축,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품질 제고 ▲ESG 도입 사회적 가치·공헌도 향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공제회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과제 도출과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경북대 사회과학대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정대학교 부총장,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교육자문위원, (사)한국 HRD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성운대학교 석좌교수와 KIUF 명예총장으로 재임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 훈 신임 이사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제회의 역할 강화"
"조직진단 통해 불필요한 시스템 철폐와 효율성 제고"

기사입력 2023.05.23 12:18 | 최종수정 2023.05.23 20:25 | 정성민 기자

가 가 < >



▲22일 취임식을 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 훈 신임 이사장

교육부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에 정 훈 성운대학교 석좌교수가 임명·취임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임 정훈 이사장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중앙회 발전을 위해 조직혁신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시스템 철폐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제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 훈 이사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 박사로 그동안 대경대학교 교수, 서정대학교 부총장,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성운대학교 석좌교수, KIUF 명예총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줄곧 교육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에 정훈 박사

A 송원근 기자 | O 입력 2023.05.23 16:30 | O 수정 2023.05.23 16:48 | M 댓글 0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에 정훈 박사가 22일 취임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이다.

정 이사장은 22일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혔다. 우선 중앙회 조직발전 방안으로 정 이사장은 △조직혁신안 마련 및 마스터플랜 구축 △불필요한 시스템 철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원활한 대외협력업무를 위한 조직재정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 관리 기능 강화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업무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SI 업무 프로세스 도입 개선을 통해 단순화, 간소화,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고, 지점 중심 대면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이동하겠다"며 "ESG 도입으로 사회적 책임·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와 공헌도 향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경북대 사회과학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경대 경찰행정과 교수, 서정대 부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교육자문위원, 성운대 석좌교수,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KIUF) 명예총장을 맡았다.



정훈 이사장.